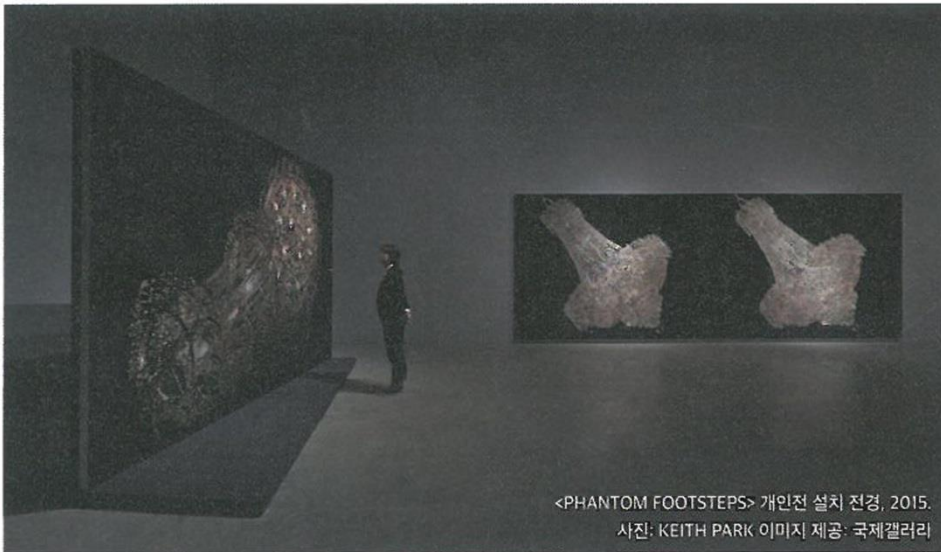


HEREN

홍콩에 걸린 상들리에, 국제갤러리

April, 2016 | Heren



<PHANTOM FOOTSTEPS> 개인전 설치 전경, 2015.
사진: KEITH PARK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홍콩에 걸린 상들리에, 국제갤러리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홍콩에 가면 함경아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제4회 아트 바젤 홍콩의 인카운터스 섹션에 그녀의 대표작인 상들리에 대형 자수 회화 5점이 출품되기 때문. 인카운터스는 작가들의 대형 조각과 설치 작품을 위한 섹션으로 국내에서 참여하는 작가는 함경아가 유일하다. 그녀는 디지털 이미지를 프린트해 이를 도안으로 자수를 수제작한다. 이런 작업을 거친 상들리에의 흔들리거나 바닥에 추락한 상모습은 세계사의 권력 관계, 남북 분단, 그리고 그 역사를 거쳐온 우리 사회와 개인의 모습을 시사한다. TEL 02-3210-9885